

자료제공 : 2023. 7. 10.(월)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10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

주거안심지원반장	이민경	2133-9573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주거안심동행팀장	김지원	2133-9590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담당자	김혜미	2133-9589
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6매

관련 누리집	housing.seoul.go.kr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서울시, 민·관 협력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등 지원사업 본격 추진

- 7.10(월) 대한주택건설협회·대우건설·한국해비타트 '주거안심동행 업무협약'
- 9가구 시범사업 이어 '대한주택건설협회' 합류로 약 50가구 집수리 지원 가능
- '대우건설' 사업비·임직원 자원봉사, '한국해비타트' 맞춤형 집수리 지속 지원
- 시 "민·관 협력 주거복지사업의 새 모델 제시... 참여 기업·단체에 깊은 감사"

"지난 겨울,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집 안 곳곳 꼼꼼히 확인해 주던 때가 기억납니다. 곰팡이가 온 바닥을 뒤 덮어 단 하루도 편히 잠드는 날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쾌적하게 달라지다니 천복을 누리는 것만 같아요. 곰팡이, 습기, 냄새... 반지하에 사는 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통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. 아직도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싶어요. 저희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(안심동행주택 9호 가구- 김00(母), 박00(子) 가족)

-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대우건설,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취약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,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주었던 '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 협력사업'에 새로운 기관이 합류한다.
- 서울시는 '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' 본격 추진에 앞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7.10(월) 오전 10시 서울시청(8층 간담회장)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·대우건설·한국해비타트와 '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'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
- 협약식은 10:00~10:20 오세훈 서울특별시장,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,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.
- 당초 시범사업('22. 11.~'23. 5.)에 참여했던 대우건설, 한국해비타트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주택업계가 모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'대한주택건설협회'가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로 함께하게 되면서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됐다.
-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국의 1만 여 주택건설 업체 회원사와 함께 1994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을 비롯 사회복지시설 후원물품 지원,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.
- 올해는 후원규모가 시범사업 대비 4배 가량 확대돼 약 50가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. 시는 당장 집수리가 여의치 않은 가구에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제습제·방충제가 포함된 '안심동행키트'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시범사업 중에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어르신·아동 양육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통·반장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사정에 밝은 단체의 추천을 통한 발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.
- 지난해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인 '대우건설'은 안심동행주택 사업비 후원, 임직원 자원봉사 등을 제공하며 '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'을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 중이다.

-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 개선,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을 펼치는 '대우건설 사회봉사단'은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반지하 주택 철거, 입주 청소 등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'안심동행키트' 제작·배부도 함께할 예정이다.

- 집수리를 시행하는 '한국해비타트'는 올해도 풍부한 시공 경험을 살려 가구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비, 물품 후원, 자원봉사에 함께하고자 하는 동행파트너를 발굴하는 데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.

- 한편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우건설·한국해비타트와 '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 협력 시범사업'을 진행, 총 9개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. 단열·방수 시공, 이중창 설치 등 주택성능 개선을 비롯해 벽지·장판 교체, 싱크대·욕실 수선 등 전반적인 수리를 지원했다.

- '반지하'는 단열·방수 시공, 이중창 설치 등 비용 부담이 큰 주택성능 개선 없이는 습기, 곰팡이가 반복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는 반지하 '주택성능'을 개선하는 공사에 집중했다.

-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"(안심동행주택) 첫 지원 대상이던 서대문구 북아현동 가구의 경우에 열악했던 반지하 가구가 새 집처럼 바뀐 것을 보면서 집주인과 주민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게 기억난다"며, "올해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새롭게 동행 파트너로

동참하게 되면서 사업 규모가 더 커지고 대우건설에서도 올해 후원금을 두 배로 올려주시는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게 됐고 올해부터 매년 50가구를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- 이어, “서울시도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돕는 정리수납교육, 주거심리상담, 주거안심동행키트 제공 등 민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민관협력 사업에 내실을 다져나가는 한편, 주거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주거안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민관의 주체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최대한 확대해 나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

<사진 설명: 왼쪽부터 홍경선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, 정원주 대우건설-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,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,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>



<업무협약식 참석자들과 단체사진>

-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-

서울시-대한주택건설협회-대우건설-한국해비타트 업무협약 체결

□ 개 요

- 일 시 : '23. 7. 10.(월) 10:00~10:20
- 장 소 : 간담회장1(본관 8층)
- 주요내용 : 시범사업 성과발표, 인사말씀, 협약체결, 기념촬영 등
- 참 석 자 : 오세훈 서울특별시장, 정원주 대우건설·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,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

□ 주요 협약내용

- 지원대상 추천 및 행정지원 제공 : 서울특별시
- 사업비 후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 장려 : 대한주택건설협회 & 대우건설
- 사업 주관 및 결과 보고 : 한국해비타트

□ 진행순서

구 분	시 간	내 용	비 고
협약식	10:00~10:01 (1')	○ 개회 및 내빈소개	·사회: 주거안심지원반장
	10:01~10:09 (8')	○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	·발표: 주거안심지원반장
	10:09~10:15 (6')	○ 협약 당사자 인사말씀	서울시장, 대우건설·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, 한국해비타트 이사장
	10:15~10:17 (2')	○ 협약서 서명 및 교환	
	10:17~10:20 (3')	○ 기념촬영 및 폐회	